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생협력 선포식!

대기업·협력사 잇는 상생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상남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 R&D센터에서 열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 상생협력 선포식'에 참석해 방위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행사에는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장,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협력사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에서는 △혁신성과 공유제 도입 △상생협력펀드 확대 △협력사 연구개발 및 수출 지원 강화 등 상생협력 정책 발표와 정부·지자체·협력사가 함께 공동 세레머니를 진행했다. 한편, 경남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역사회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지난해 4월 도내 대기업 14곳과 '경상남도와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은, 수도권

최성룡 기자

설계 경제성 검토(VE) 품질·안전성 높여

부산 340억 원의 예산 절감(절감률 4.8%), 1천149건의 아이디어 채택



부산시는 지난해(2025년도) '설계 경제성 등 검토(VE)'를 통해 3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공사 설계 품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공공시설 건설 공사 설계 27건을 대상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워크숍을 총 95회 시행해 총공사비 7천 84억 원 대비 3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률은 약 4.8퍼센트(%)다.

또한 시는 지난해 각종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능 분석과 대안 검토를 통해 총 1천149건의 아이디어를 채택해 설계에 반영했다.

특히 최근 건설공사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는 단순 비용 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기능 향상, 안전성 확보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제

이용우 기자

2027년도 국가예산 4조 원 시대에 시동

울산시는 국가예산 4조 원 시대를 목표로 2월 3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과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국비 2조 7,754억 원과 보통교부세 9,654억 원을 합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7,408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2027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은 4조 원으로(보통교부세 1조 원, 국비 3조 원) 2026년 확보액보다 2,592억 원(6.9%) 늘어난 금액이다.

울산시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

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 기술개발

▲4극3특 과학기술혁신 지원사업 ▲지역성장 기금(펀드) 조성 ▲반구천 세계유산 체험·체류형 문화경관 조성 사업 등이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산 조선해양특화 새싹기업 단지(스타트업 파크) ▲카누슬라럼 경기장(센터) 건립 ▲반구대 일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1단계)

이호근 기자

등이다. 김두겸 시장은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신규사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국가예산은 자체에서 4월 말까지 중앙부처로 신청, 중앙부처에서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로 예산안 제출, 정부가 9월 3일까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하면 국회 심의의결로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인 '울산페이' 구매를 추진한다.

이호근 기자

유망 중소기업 대구국가산단에 295억 신규투자

수도권 기업 천일테크원(주), 중국사업장 국내복귀 후 대구에 신규투자



대구광역시는 2월 3일(화) 시청 산격청사에서 천일테크원(주)(대표 박준서), (주)대원에스디(대표 신재호)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신규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 2 단계 구역에 총 295억 원(천일테크원 172억 원, 대원에스디 123억 원)을 투자해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며, 총 46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먼저 천일테크원(주)은 1974년 설립 이후 인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차량용 전장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를 생산해 온 중소기업으로, HD건설기계,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대동 등에 1,000여 종의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관세정책 등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 복귀 후 대구에 생산거점을 신설해 지역 고객사 대응력과 거래 확대를 도

모하기 위한 결정이다.

대구국가산단 12,890㎡(3,899평) 부지에 172억 원을 들여 신규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신규공장에서는 기존 제품은 물론 전기차용 고전압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을 생산하고, 태양광 스마트 정션박스(Junction Box)

개발을 통해 국내외 신규 수주 확

대에 나설 계획이다.

박준서 천일테크원(주) 대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회사의 성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대원에스디는 자동차 용 자동화 제어장비 및 산업용 자동화 장비를 전문적으로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1991년 '대원엔

지니어링'으로 출발해 2011년 범인 전환과 함께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현재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에 본사와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우수한 품질 관리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신규 아이템 수주와 해외 시장 매출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평택, 경북 칠곡 공장에 이어 대구국가산단 내 10,762㎡(3,256평) 부지에 123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용 자동화 제어장비 제작을 신설할 계획이다.

신재호 (주)대원에스디 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디딤돌 옷드림+ 운영…청년 면접 준비를 도와드려요

중구-베스텔로, 청년 면접 정장·구두 대여 사업 운영 업무협약 체결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와 베스텔로(대표 권영숙)가 2월 3일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2026년 청년 면접 정장·구두 대여 사업 '디딤돌 옷드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길 중구 청장과 권영숙 베스텔로 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중구는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을 돋기 위해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지난 2019년부터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김영길 중구청장과 권영숙 베스텔로 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취업 자신감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취업 지원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의 가

정을 방문해 '우수 자원봉사자의 집' 표찰을 부착한다.

(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봉사시간 2,500시간 이상인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우수 자원봉사자의 집' 표찰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우수 자원봉사자 1호부터 272호까지 272명에게 표찰을 전달했으며, 올해는 273호부터 318호까지 46명에게 표찰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호근 기자

경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 설맞이 특판 행사!

서울, 대구 등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 9개소, 2월 22일 까지 동시 진행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구매금액의 10%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중 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은 지난해 6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운영을 시작한 2016년(13억 원) 대비 약 5배 성장했다. 각 매장은 단순 판매를 넘어 소비자 반응과 소비 성향을 분석해 제품 개선과 신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등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박찬국 국장은 "설맞이 특판행사가 소비자들에게 경북의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할리적인 가격에 만나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2일까지 경북 농촌 융복합(6차)산업 안테나숍 9개소에서 설맞이 특판 행사를 개최한다.

농촌 융복합산업 안테나숍은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의 제품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와 공동 품평회 등을 거쳐 업체별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전략

원 경남지역암센터 전문의가 원격으로 진료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현장에서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환자 상태를 전문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격지 전문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진찰해 의료자문을 제공했다. 혈전 결과에 따라 거창 적십자병원과 연계해 진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정현 보건소장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암환자도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격협진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암환자 건강주치의 제와 연계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거창군 위천면은 겨울철 산불 발생 예방 분위기 확산과 주민들의 산불 경각심 제고를 위해 관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1마을을 1현수막' 산불예방 운동을 추진했다.

신종호 면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마을 주민들과 산불 없는 위천면을 만들기 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룡 기자

거창군 ICT 기반 원격협진, '가정에서' 의료상담 실시

거창군 보건소는 지난 3일, 거창읍 암환자 가정에서 올해 첫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경협진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암환자 가정을 찾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자문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돋는다. 이날 협진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